보 도 자 료

2008. 8.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8. 3(일)	**담당자**	류건식 재무연구실장
홍보담당	김 진 억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31 **총 2매**

제 목 :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보험회사 ,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를 통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강화 필요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고려, **보험회사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보험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채구조를 고려한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전략 수립, 연금계리 및 컨설팅 능력의 확보, 연금운용 전문인력의 확보, 맞춤형 연금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급여부채 평가가 청산기준방식에서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한 계속기준(예측급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급여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보험수리적 가정(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할인율)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부채 및 퇴직연금자산 변동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재무적 변동성)는 훨씬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리스크 버퍼능력, 즉 재무건전성이 낮은 일부기업은 과도한 퇴직급여채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급여채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보험회사는 퇴직급여부채 평가방식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자산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에서 부채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으로 전환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 연금수리적 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 및 제도설계 등의 컨설팅능력 제고가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즉 연금계산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의 추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연금계리적 마인드와 연금제도설계를 차별화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장기 운용자산의 운용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채무변동리스크의 억제와 연금자산의 운용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형태별에 따른 연금ALM시스템의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맞춤형 연금ALM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연금부채 평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거의 국제회계기준에 준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퇴직연금시장 변화 및 보험회사의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경쟁력을 보다 제고시켜 나간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